

입시 정책에서 학문 정책으로의 교육 개혁을 촉구하며

강 희 경

충북대 사회과학대학장



교육부의 1998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수는 1997년에 263만 명(전문대학과 대학원 포함)이고, 대학 진학률(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포함)은 83.7%이다. 이제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대학생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은 이와 전혀 반대이다. 1995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대학이 36.7명, 고등학교 22.7명, 중학교 26.6명, 초등학교 31.8명으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보기 좋게 꺾어 놓고 있다. 같은 해 미국 대학이 15.1명, 일본이 19.3명, 독일이 12.8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나 교육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적 위상이나 경제발전 수준의 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대학 모형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찾고 있지만, 미국의 대학은 미국이 세계의 최부국이자 최강국을 지향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1인당 교육 투자액은 많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적은 것이다. 우리는 부자 나라도 아니고 세계를 이끌어야 하는 최강 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면서 미국의 외형만을 좇았다. 그 결과 인구당 대학생수는 세계 2, 3위를 다룰 정도로 급팽창하였지만,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세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관계자들, 즉 학부모, 교수, 학생, 교육학자, 교육부 모두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질은 따지지 않은 채 국민들의 높은 출세열(교육열이 아니다)에만 영합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장기적 계획과 투자로 대학 교육의 내용을 혁신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교육 정책의 틀을 입

시 정책에서 학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각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요강이 주요 기사가 되는 나라는 과문이지만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 정책이란 반드시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학문 정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대학의 편제를 학문의 성격에 따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제간 연구와 교육을 위해 연구원(소)에 장기 과제를 연구하는 교수를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연구 결과를 강의할 수 있는 과목 개설권을 부여하여 학문간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전자만 논의하기로 한다.

전자는 실천이 어려울 뿐이지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대학 편제를 순수학문과 응용학문(또는 직업교육 학문)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대학'으로, 후자를 '전문대학원'으로 부른다. 순수학문 과정의 '대학'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모두 3년제로 한다. 이유는 현재 대학의 1학년 교양과목들은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국어, 국사, 수학을 되풀이하고 있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응용학문 과정은 학문의 성격에 따라 2~4년제 전문대학원으로 만든다(예컨대 의학 4년, 법학 3년, 경영학 2년). 이 방식은 학문의 체계를 세운다는 점에서, 나아가 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를 나오고 의대에 진학하면 의료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사회학 지식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깊이있는 접근을 하여 사회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응용학문의 편제에 따라 1~2년 정도 교육 연한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단점만 제외하면 이 방식은 순수 학문을 비롯하여 모든 학문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3년제 대학만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도 많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연한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기술만 배움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없는 '개인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상태에서 벗어나 무엇보다도 '시민형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 방식과 달리 학부를 크게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2학년 과정까지를 예과로 하고 3학년 때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전문대학원)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입시 위주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학생들이 순수학문 대신 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불필요한 교양 과목을 성적 위주로 수강하게 하여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 실제로 서울대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실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는 표 언는 데 유리한 입시 위주의 정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 방향이란 큰 틀에서 학문 위주로 교육 개혁을 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정권 교체기인 지금이 시기의 적으로도 좋다. ■

강희경/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과학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 있으며, "금융 전산화와 은행업 노동력 구성의 변화"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